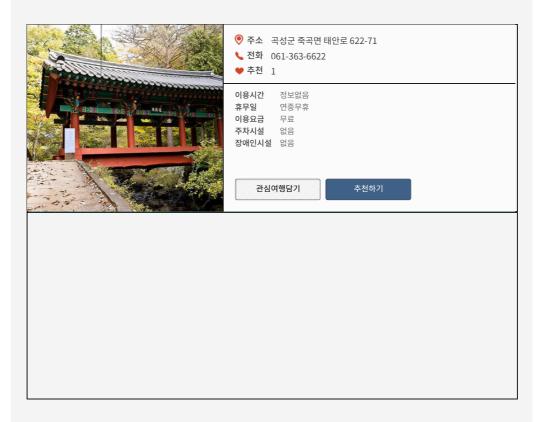




국가유산현황 관광명소> 국가유산> 국가유산현황

태안사능파각 (泰安寺凌波閣)



문화유산지정번호	지정일	시대	규모
유형문화유산 제82호	1981.10.20		1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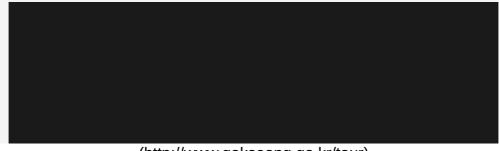
태안사의 금강문으로 누각을 겸한 일종의 다리건물이다.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,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'능파(凌波)'라 이름하였다.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번뇌를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진입함을 상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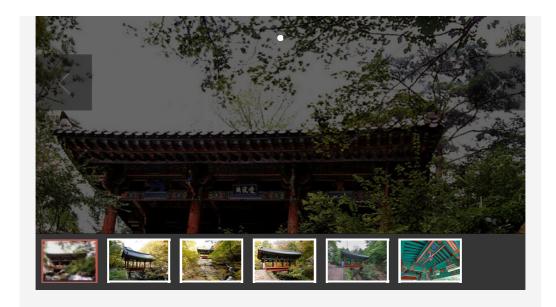
통일신라 문성왕 12년(850)에 혜철선사가 처음 지었고, 고려 태조 24년(941) 광자대사가 수리하였다고 한다. 그 뒤 파손되었던 것을 조선 영조 43년(1767)에 다시 지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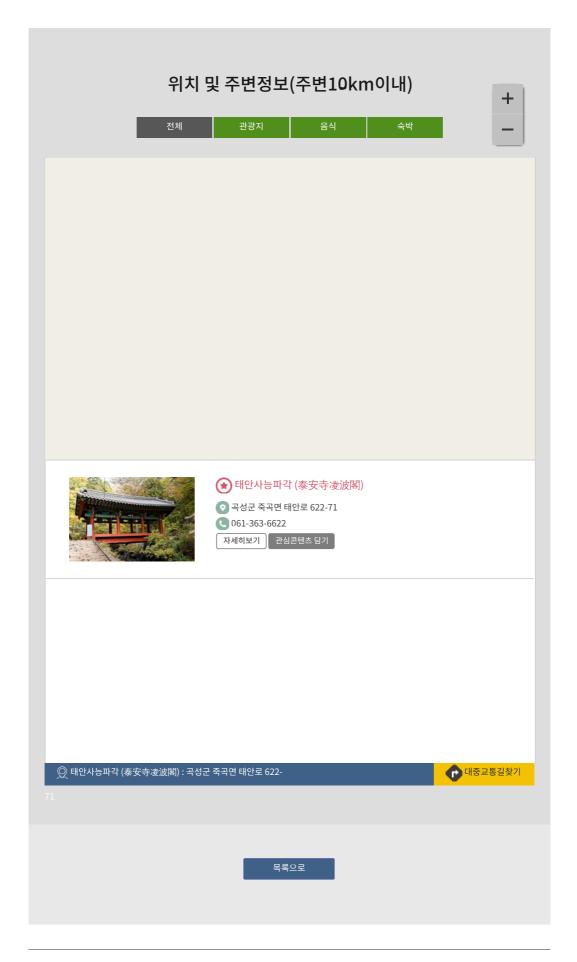
다리를 건너는 쪽에서 보았을 때 앞면 1칸·옆면 3칸의 규모이며, 지붕 옆면이 사람 인(人)자 모양인 간결한 맞배지붕이다. 계곡의 양쪽에 바위를 이용하여 돌축대를 쌓고 그 위에 두 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다.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 치하는 주심포 양식이며,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민흘림 기둥을 사용하였다.

여러 가지 동물상을 조각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, 다리와 문·누각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지은 특이한 건물이다.

※ 본 저작물은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문화재검색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문화재청 국가 문화유산포털, http://www.heritage.go.kr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

COPYRIGHT © GOKSEONG-GUN. ALL RIGHTS RESERVED.

Web Contents

